

미·이란 첫 종전협상 결렬...미 “핵포기 명시적 약속 필요”

美부통령, 회견서 “합의 도달 못해...미국으로 복귀” 곧바로 전용기 탑승 향후 전망 불투명...조만간 다시 마주 앉아도 '2주 휴전' 내 타결 불분명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협상이 합의 없이 '노딜'로 끝났다. 미국 대표단은 핵포기에 대한 이란의 명시적 약속이 없었다며 추가 협상 없이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다만 '최고이자 최종인 제안'을 제시했다며 이란에 수용을 압박했다.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기대를 모았던 협상이 결렬되면서 향후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조만간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는 있으나 2주인 휴전 기간 내에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과의 종전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끈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파키스탄 현지시간으로 12일 오전 6시30분께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합의 없이 미국으로 귀환한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전날부터 이란과 2시간 동안 협상하며 이란에 미국의 '레드라인'을 매우 명확하게 밝혔으나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들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신속하게 핵무기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시적 약속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목표이고 우리가 협상에서 얻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밴스 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10여차례 통화했다고도 밝혔다. 최종 결렬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으로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이어 “최고이자 최종인 제안을 제시했고 이란이 수용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이란에 수용을 압박하고 2분만에 회견을 마쳤다. 그리고는 30여분 뒤 미국행 전용기에 탑승했다.

밴스 부통령의 회견이 끝난 뒤 이란 국영 매체에서도 미국과의 협상이 끝났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결렬 보도가 나왔다.

이날 종전협상에서 미국과 이란은 이란의 핵 보유 금지와 관련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위협 제거를 명분으로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한 만큼 미국에서는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처리를 비롯



12일(현지시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 관련 회담을 마친 후 에어포스 투에 탑승하기 전, 미국 부통령 JD 밴스(왼쪽)가 파키스탄 국방참모총장 겸 육군참모총장 아심 무르티(오른쪽) 원수, 그리고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 모하마드 이사크 다르(가운데)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해 향후 핵보유를 저지할 수 있는 구체적 약속이 있어야 이란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이견도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보인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개방을 원

하는 반면 이란은 최종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면 협상 개시에 맞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통과시키며 기뢰 제거 작전에 착수, 압박 강도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 이란의

반발을 초래하며 협상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이란이 상당한 입장차 속에 결국 첫 협상에서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향후 전망은 한층 불투명해졌다.

일단 이번 대면 협상이 결렬되기는 했지만 미국과 이란 간 협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의 제안에 대한 이란의 수용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유가 상승의 부담과 국내 여론 악화 속에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란 전쟁의 신속한 마무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파키스탄이 동석한 3차 협상의 형식이기는 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최고위급 대표단이 대면해 서로의 '패'를 보인 만큼 조만간 협상 테이블이 다시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기엔 2주간의 휴전 기간이 너무 짧다는 관측도 있다.

이 때문에 양측이 휴전을 연장하면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벌써 나오고 있다.

앞서 밴스 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이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만나 마라톤 종전 협상을 벌였다. 1979년 이후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이란 간 최고위급 인사가 대면으로 벌인 협상이었다. /연합뉴스

중, 인프라 사업 속도...철도 투자 전년比 5.1% ↑

중국이 철도 건설 등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 투자에 속도를 내며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다.

12일 중국 국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국가철도그룹은 전날 올해 1분기 전국 철도 고정자산 투자가 1천379억 위안(약 3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현재 중국 전역에서 추진 중인 고속철과 터널, 대형 교량 등 주요 철도 공정도 소개했다.

특히 올해 1분기 들어 주요 노선의 진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산시성 시안-후베이성 선, 허베이성 송안-허난성 상주 고속철 일부 구간이 시험운행 단계에 돌입했고, 쓰촨 청두-충칭 고속철 교량은 모두 연결된 상태라고 전했다.

상하이-충칭-청두를 이으며 장강(長江·양쯔강)을 따라 건설되는 양장(滬江) 고속철 안후이 구간 터널도 전면 관통을 마치는 등 개통을 향한 막바지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허난성에서는 길이 약 12km의 초대형 교량 건설이 진행 중이며, 저장성과 광시 좡족자치구에서도 고속도로·기존 철도 노선을 넘나드는 장대 교량 공사가 본격화했다.

중국은 올해 철도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해 연간 2천km 이상의 신규 철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일 항공노선 취소율 3월 50% 육박

일본의 벚꽃 관광 성수기인 3월에도 중국과 일본 간 항공편 취소율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홍콩 성도일보보는 항공 데이터 분석업체 항반관자의 집계를 인용해 3월 한달 동안 중국 본토와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 2천601편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체 운항 계획 대비 취소율이 49.6%에 달하는 것으로, 전월(48.5%)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총 53개 노선이 전면 취소됐으며, 베이징 다싱 국제공항과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을 잇는 노선의 경우 예정된 125편이 모두 취소됐다.

봄철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항공편 위축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내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여파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아르테미스 2호 환영식...“지구서 산다는건 특별한 일”

우주비행사들 “우리는 영원히 하나”

“셋, 둘, 하나, 인테그리티!”

53년 만에 인류의 달 근접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은 1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존슨우주센터 인근 앨링턴 필드에서 열린 환영식 무대에서 소개받자마자 함께 구호부터 외쳤다.

이들이 외친 ‘인테그리티’는 탑승한 우주선의 별칭(콜사인)이기도 하지만 ‘온전함’, ‘일관성’, ‘하나됨’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들은 열흘간 우주 공간에 있다가 지구로 돌아온 지 하루 만에 공개 석상에 나타났다음에도 피곤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활기 넘치는 모습과 여전한 팀워크를 과시했다.

리드 와이즈먼 선장은 동료 대원 셋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로 묶여 있다”며 “여기 아래 있는 누구도 우리 넷이 겪은 일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무 전문가로 승선한 크리스티나 코코도 동료들을 가리켜 “승무원이란 무슨 일이 있든 항상



아르테미스 2호 임무 전문가 제레미 한센, 크리스티나 코코, 조종사 빅터 글로버, 그리고 사령관 리드 와이즈먼이 텍사스주 휴스턴 앨링턴 필드 합동 예비 기자회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포용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함께하고 매 순간 같은 목적으로 노를 저으며 서로를 위해 조용히 희생할 의지가 있고 은혜를 베풀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라며 “승무원은 같은 관심사와 같은 필요를 갖고 불가피하게, 아름답게, 의무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역설했다.

코코는 이어 “이번 여정으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며 “지구도 역시 승무원이라는 것”이라고 약간 울먹이는 말투로 말했다. /연합뉴스

와이즈먼 선장은 열흘 만에 지구에 발을 디디고 선 데 대해 감격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두손을 어깨너비 정도로 벌리면서 “24시간 전에는 창밖으로 지구가 요만한 크기로 보였고 마하 39로 비행 중이었는데 이제 앨링턴에, 집에 돌아와 있다”며 “지구에서 20만 마일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것이 발사 전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꿈인 것 같지만, 막상 거기 나가 있을 땐 그저 가족과 친구에게 돌아가고 싶을 뿐”이라고 우주 공간에 있을 때의 심정을 전했다.

그는 이어 “인간이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고, 지구에 산다는 것도 특별한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제러드 아이작먼 미국 항공우주국(NASA) 국장은 와이즈먼 선장이 지난 2월 인터뷰에서 ‘이 임무가 잊히기를 바란다’, ‘이후에 올 (더 의미 있는) 것들에 가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것 같아 미안하지만, 아르테미스 2호는 언제까지나 기억될 것”이라고 이들의 성취를 상찬했다. /연합뉴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

